

○ 급 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하는 기술이다. 사고 현장에서 급성 환자에게 치료 전문 팀이 도착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적절한 조치로 회복기간의 단축과 후유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

1. 일반 원칙

1) 현장을 10초안에 둘러보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자신과 환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가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몇 명이나 다쳤는가
- 환자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2) 응급인 경우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여 다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장소: 정확한 주소, 거리 이름, 건물 이름 등
- 사건이 발생한 시간
-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 응급 상황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
- 환자의 수
- 환자의 상태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응급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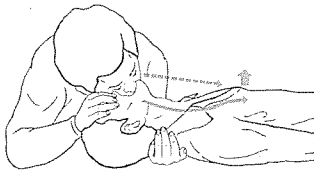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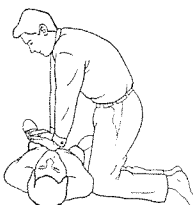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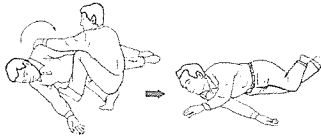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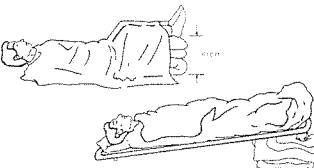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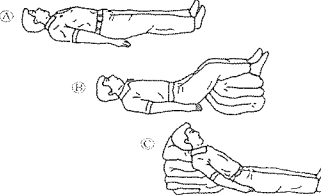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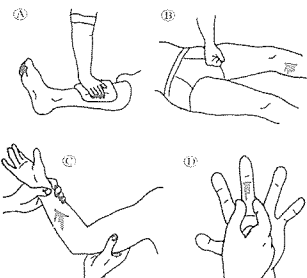
3)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환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 환자를 움직여 부상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 척추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
- 의식이 없는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 환자를 움직여야만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킨다.
 - ▶ 특별한 경우(예: 호흡곤란)를 제외하고는 누운 자세로 운반
 - ▶ 골절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면서 운반
 - ▶ 다리를 앞으로 향하여 운반하되 언덕, 계단 등 높은 곳으로 이동시에는 반대로 운반

4) 익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조난자에게 가능한 한 땅에서 손, 가벼운 나뭇가지, 긴 지팡이, 사다리, 로프 등을 준비하여 건넨다.



<p>환자 의 안전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p>목 배 의 부 상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p>의 식 이 없 은 환 자 의 자 세 를 확 보 하 는 방 법</p>	
<p>소 의 부 상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p>신 경 전 도 의 부 상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p>모 든 의 부 상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p>상 지 의 부 상 을 확 보 하 는 방 법</p>	

○ 구조할 사람이 받을 안전한 위치에 둔 다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리띠나 바지를 잡게 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위치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 물 위에 뜰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던져 줄 수 있다. 던질 수 있는 거리는 대개 15m 정도이다.

○ 만일 배를 타고 구조하러 간다면 배의 옆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당기지 말고 뒤쪽에서 끌어당겨야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거나 익수자가 의식이 없을 때만 수영으로 접근한다.

○ 익수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뒤에서 끌고 나온다.

○ 구조 후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2. 심폐 소생술

만일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기본 소생술을 정확히 익혀야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처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1) 환자의 반응을 살핀다.

- 척추 부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를 옮긴다.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 환자의 귀에 대고 “괜찮은가”를 묻는다.

2) 응급 의료 센터에 연락한다.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 달라고 소리 친다.

3) 환자를 똑 바로 눕힌다.





- 환자의 머리, 몸, 다리를 동시에 부드럽게 돌려 눕힌다.

4) 기도 개방(머리 뒤로 젖히기/ 턱 들기)

○ 환자의 머리 가까이 있는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뒤쪽으로 밀어서 머리를 젖힌다.

○ 다른 손의 손가락을 턱뼈 부분에 대고 턱을 들어올린다. 이때 턱 밑의 살을 누르지 않는다.

- 환자의 입이 닫히지 않게 머리를 뒤로 젖힌다.

동공으로 알 수 있는 환자의 상태	
<p>정상상태</p>  <p>동공의 크기 : 2~4mm</p>	<p>동공신대</p>  <p>빛을 비춰도 수축되지 않으며 호흡, 맥박이 없어 있으면 생명이 위험.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살아 있으면 뇌 손상이나 무거운 병에 걸린것. 몹시 위험</p>
<p>동공수축</p>  <p>• 동공의 크기 : 2mm이하 • 혼수상태일 때 • 뇌의 중요한 부위에 출혈 등의 이상 발생시, 수면제 등 약물중독일 경우</p>	<p>한쪽 동공신대</p>  <p>• 뇌가 손상되었거나 무거운 병에 걸린 위험한 상태</p>

○ 턱을 들어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쓰기보다는 둘째손가락의 옆면을 사용한다.

5) 3~5초간 호흡을 확인한다.

○ 기도를 개방한 채 환자의 입과 코에 귀를 댄다.

○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한다.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 숨소리를 들어보고 느껴 본다.

6)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둔다.

- 환자의 코를 엄지와 검지로 막는다.
-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처치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매회 1.5~2초에 걸쳐 숨을 천천히 2회 불어넣는다. 환자에 숨을 불어넣은 후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 숨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관찰한다.
- 숨을 불어넣은 후 숨을 다시 내 쉴 수 있도록 막았던 코를 놓아준다.
- 첫째 숨이 환자의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환자의 기도를 열기 위해 환자의 머리를 다시 뒤로 젖히고 다시 한번 불어넣어 들어가지 않으면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한다.

7) 5~10초간 맥박 확인

- 한 손을 이마에 대어 머리가 뒤로 젖혀진 상태를 유지한다.
- 다른 한 손의 두세 손가락을 환자 목의 움푹 패어진 곳에 대어 5~10초간 맥박을 재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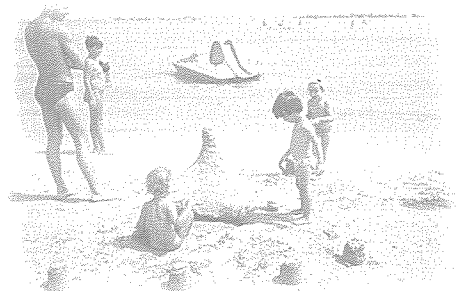
8) 맥박은 있으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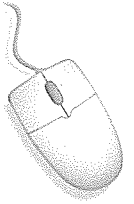
- 매 5~6초당 인공 호흡을 1회 실시한다. 10~12회 한 후 인공 호흡을 멈추고 맥박이 뛰는지 확인한다.

9)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다.

- 15회 압박에 숨 불어넣기 2회인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10) 환자가 회복하거나 응급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혹은 더 이상 지쳐서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한다.





목에 찔림	
목에 찔림	
목에 찔림	
목에 찔림	
목에 찔림	
목에 찔림	
목에 찔림	

3. 지혈 방법

외상을 받으면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혈이 가장 중요한 처치 방법이다. 개방성의 상처를 위한 지혈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우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그러나 크고 더러운 상처는 세척하지 말고 병원으로 간다.
- 2) 상처를 문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을 상할 수 있다.
- 3) 상처를 거즈로 드레싱하는 경우 손이 상처에 닿지 않게 조심하여 조치한다.
- 4) 직접 압박을 하면 대부분 출혈은 멈춘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깨끗한 형겔으로 상처 부위를 덮는다.
- 5) 덮은 형겔이 모두 젖으면 떼어 내지 말고 그 위에 새 형겔을 덮어 누른다
- 6) 함부로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화상 처치 방법

- 1) 통증이 멈출 때까지 10분~40분 찬 것을 댄다. 그러나 얼음주머니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는 10~15분 간만 사용한다.
- 2) 불이 옷에 붙으면 우선 "동작 멈추기, 쓰러지기, 바닥에 구르기"의 방법을 쓴다. 뛰면 불길기 더 번져 얼굴과 호흡기계에 화상이 번진다.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로 싸서 불을 끈다.
- 3) 열기가 있는 옷을 즉시 벗긴다. 그러나 몸에 붙어 있는 옷을 벗기지는 말고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옷을 벗긴다.
- 4) 몸에 붙어 있는 옷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상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5)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긴다. 시간이 지나면 부어서 장신구를 빼낼 수 없다.
- 6)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 7) 화상 부분에 열기가 빠지기 전에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 8) 화상 입은 팔이나 다리를 심장의 높이 보다 높게 한다
- 9) 화상의 깊이, 면적, 화상 이외의 상처나 질환, 화상의 정도를 파악한 후 의료 기관을 방문한다.